



## 코로나바이러스 시기

### 주한독일문화원 성인 강좌 대면 수업 운영 방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점차 감소하고 공교육 학교들이 순차적으로 개학함에 따라 주한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며, 이에 대한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를 참조하여 수립되었다.

-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 등교 수업 운영 방안" (2020년 5월 18일)  
<https://m.blog.naver.com/seouledu2012/221969021496>
- "교육부의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안내" (2020년 5월 7일)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053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2판" (2020년 5월 27일)
- [http://www.gidcc.or.kr/wp-content/uploads/2020/02/%EC%83%9D%ED%99%9C\\_%EC%86%8D\\_%EA%B1%B0%EB%A6%AC\\_%EB%91%90%EA%B8%B0\\_%EC%84%B8%EB%B6%80%EC%A7%80%EC%B9%A82%ED%8C%90.pdf](http://www.gidcc.or.kr/wp-content/uploads/2020/02/%EC%83%9D%ED%99%9C_%EC%86%8D_%EA%B1%B0%EB%A6%AC_%EB%91%90%EA%B8%B0_%EC%84%B8%EB%B6%80%EC%A7%80%EC%B9%A82%ED%8C%90.pdf)

이 방안은 수강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고와 지침을 토대로 수강생의 학습 효율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 방안은 성인 강좌에 해당되며, 청소년강좌와 어린이강좌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 수업에 대한 안내

### 수업 형태: 대면 수업 + 인터랙티브 미러링 수업

기본 수업 모델은 주한독일문화원 강의실에서 실시되는 대면 수업과 동시에 온라인 화상 툴 Zoom 을 통해 미러링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을 더 안전하게 느끼는 수강생은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가할 수 있다.

### 분반 및 수업진행방식

수강생간의 적절한 거리 유지를 위해 대면 수업 참가 수강생수가 제한된다.

강좌 첫째날 전 수강생은 수업에 모두 온라인으로 참석하며, 이날 담당 선생님이 분반을 한다. 담당 선생님이 수강생을 알파벳순으로 동일한 수의 두 그룹으로 분반한다. 둘째 수업일부터 분반 순서에 따라 격일제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교대로 참석하게 된다.

수강생들이 의무적으로 대면수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면 수업일에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강의실은 강사와 수강생간에 그리고 수강생 상호간에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장과 같은 형태로 책상이 배치된다.

대면 수업은 가급적 선생님의 설명 및 개별활동 중심으로 진행하며 파트너 활동 및 모둠 활동은 지양한다.

온라인 수업 참가시에 웹카메라를 사용한다.

### 수업 시간 차별화

수강생의 주한독일문화원 출입 시간을 분산하기 위하여 동시간대의 초집중강좌와 집중강좌의 수업은 시차를 두고 시작한다.

예시

- 08:50~12:20 초집중강좌
- 09:10~12:40 초집중강좌
- 18:50~21:20 집중강좌
- 19:10~21:40 집중강좌

토요일과 일요일의 수업은 기존 시간대를 유지한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강생 유의 사항

### 가정에서:

- 건강 상태 자가 진단 (건강문진표):  
수강생은 수강 기간 동안 매일 가정에서 건강문진표를 이용하여 건강 상태 자가 진단을 한다.  
건강문진표의 설문사항 가운데 한가지라도 의심 사항이 있으면 대면 수업에 참석할 수 없으며, 온라인 미러링 수업에 참석한다.  
문진사항 가운데 특히 체온 체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체온이 37.5°C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석한다.

### 문화원에서:

- 마스크:  
마스크 없이는 주한독일문화원 출입이 불가능하며, 건물 내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3층 출입문 이용:  
주한독일문화원 출입은 외부 계단을 통해 3층 출입문을 이용한다.
- 체온 검사:  
3층 출입문 앞에 열화상 카메라와 일반 비접촉체온계를 이용하여 문화원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의 체온이 측정된다. 측정 체온이 37.5°C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귀가한다.
- 문진표 작성:  
체온이 정상인 경우, 3층 입구에 비치된 문진표를 작성하고, 설문 항목 모두 정상인 경우에 건물 내로 입장한다.
- 기타 사항  
주한독일문화원의 모든 창문은 가능한 한 열려있어야 한다. 특히 에어컨은 창문을 닫고 사용하되,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한다.  
매점 이용 및 강의실 내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는 가동하지 않는다.  
흡연은 8층에 있는 흡연 장소를 이용한다.

### 강의실에서:

- 체온:  
수업 도중에 열이 난다고 느끼면, 각 강의실에 구비되어 있는 체온계를 이용한다. 체온이 37.5°C 이상이거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용산구 보건소,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귀가한다. 해당 수강생의 코로나 19 진단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 수강생 또는 문화원 강사 및 직원이 문화원에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19 진단결과 양성(확진자)으로 판정된 경우 모든 수강생과 강사 및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한다. 그리고 수업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 등록처에서:

3층 등록처에서 상담을 받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